

科學과 統治者

지난 연말에 “韓國科學技術 30 年史”가 科總에 의해 발간되었다. 80 年度의 科總의 매우 뜻있고 값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7인 의 責任執筆者의 한 사람으로 이 30 年史의 著述에 직접 가담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또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의 우리 과학기술을 전체적으로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착실하게 공부하는 기분으로 집필할 마음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일을 끝내고 책이나오고 보니 별로 흡족한 생각이 들지 않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원래 과학기술이란 너무나 광범위하여 따라서 그 많은 科學技術團體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고 이것을 짧은 시일에 그리고 한정된 原稿枚數(매우 융통성 없는)에 짜아 넣어야 하고 共同執筆者와 上部에 모신 많은 編輯委員의 공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준 主務官署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등 단순치 않은 여건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脫出口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자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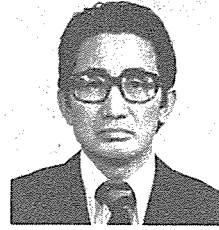
1956 년도에 大學에 설정된 講座를 위하여 西洋科學技術史를 처음 著作하고 몇년동안 강의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識見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지역적인 偏見을 제거하는 방법이 旅行하는 일인것처럼 時代固有의 時間的 偏狹性에서 해탈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時代를 뒤돌아 보아야 하는 동시에 보다 아름답고 보다 뜻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또한 모든 과거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現代는 반듯이 最善의 시대도 아니고 또 最大로 현명한 시대도 아닌것처럼 가장 최후의 시대도 야님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종합적인 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낡은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단순한 好奇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보다 명백히 豫見하고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과학기술 30 年사를 더듬어 보고 특별히 생각된 것

□…科學技術發展에 대한 統治者의 역할이 어느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바 많았다. 말하자면 통치자가 그 나라 國力을 배양함과 동시에 對外에 國위를 선양하는 國策을 세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政策遂行의 核心」을 어디에 두고…행동을 하느냐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朴 益 洙 <韓國科學史學會長>

은 科學技術發展에 대한 統治者의 역할이 어느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바 많았다. 말하자면 통치자가 그 나라 國力을 배양함과 동시에 對外에 國위를 선양하는 國策을 세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政策遂行의 核心」을 어디에 두고 어느정도 직접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다.

통치자가 당면한 국민의 생활과 消費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면 그 모든 國力과 外援이 그러한 소비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始終하게 됨은 물론이고 또한 통치자가 당면한 국민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經濟自立을 최우선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정책수행에 모든것이 동원되고 발전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후 우리 과학기술 30년의 역사를 크게 구분한다면 이러한 두가지 정책의 배경속에서 성장하여 왔으며 급속한 우리의 科學技術 발전은 後者인 經濟自立의 정책속에서 성취되어 왔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확인하고 집견하고 포상하고 등) 또 輸出振興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貿易振興擴大會議, 표창등) 통치자가 좀 더 科學技術振興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더라면 樣相은 더욱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中共이 中國大陸을 지배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中國에는 세계에 알려진 科學者란 다섯손가락 안으로 꼽을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한 中共이 世界強大國이 되는 가까운 길이라는 政策的 核心을 잡고 국가적으로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약 10년을 지나는 동안 그 야심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經濟발전과 社會福祉의 기본요건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 國防, 外交의 절대적인 힘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속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저하는 소망을 성취하려면 바로 우리의 통치자가 그 가장 基本要件으로서 과학기술진흥문제에 대하여 國家政策의 핵심으로 어느정도 절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라 생각해본다.